■자전거의 진화 어디까지…

자전거가 자동차를 닮아가고 있다. 자동차의 필수 장치인 전조등·네비게이션·스피커·보안 장치가 자전거에 적용되는가 하면 밟으면 충전되는 전기자전거도 출시됐다. 지난 22일부터 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자전거박람회'에는 최첨단 자전거와 부품 등이 전시돼 자전거의 진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줬다.

한 번 충전으로 40㎞ 가는 전기자전거

운동량 등 알려주는 네비게이션도 나와

◇밟으면 충전되는 체인없는 전기자전거=만도는 최근 한 번 충전으로 40㎞를 가고 페달을 밟으면 자가 충전되는 체인 없는 페달식 전기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 스쿠터처럼 달릴 수 있고 페달을 밟으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이며, 일반 가정에서 3시간이면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충전을 위한 소형 발전기가 탑재됐지만 탄소 소재인 카본 프레임을 사용해 무게를 17㎏까지 줄였고, 접을 수 있어 자동차에도 손쉽게 실을 수 있다. 고정 스탠드를 활용하면 실내에서 헬스 사이클로도 활용 가능하다.

주행거리와 주행시간, 속도, 이동경로, 열량 소모량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 컨버전스 시스템'도 개발해 조만간 장착할 예정이다.

◇주행 정보·운동량까지 알려주는 자전거 네비게이션=소니의 신형 네비게이션(NV-U35)은 3.5인치 화면을 장착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자동차, 보행 중에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모드에서는 세부적인 도로 상황과 직선 경로를 안내하며, 자전거 전용 주차장과 자전거 점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주행 정보와 칼로리 소모량 등을 표시하는 사이클 컴퓨터와 주행 경로 기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아이리버의 자전거용 네비게이션 'NV미니 자전거 에디션'은 3.5인치 크기로 자전거용 거치대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GPS 수신을 활용한 운동 기능을 탑재해 자전거 운동 거리에 따른 효과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시간, 거리 등 운동량에 대한 목표를 정하면 실시간으로 수치 변화와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전거용 방향지시등·차폭등·주행등 개발=자전거 안전용품 전문업체 룩쏘의 '윈쿠(Winkku)'는 영국의 비비드 프로덕트 디자인 사가 개발한 것으로 방향지시등·백미러·차폭등·주행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 용품이다.

총 21개의 고휘도 LED를 탑재해 용도에 따라 불빛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 방향지시등 작동 시에는 사운드가 함께 작동해 주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AA타입 건전지 3개를 사용하며 차폭등을 작동 시 1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절단기로도 잘리지 않는 자전거 보안장치=자전거족이 늘면서 비싼 자전거와 고가 부품을 노리는 '자전거 도둑'도 극성이다. 자전거닷컴에서 판매 중인 'LJ-9080M 4단 관절키'는 특수합금강 재질의 자물쇠로 톱·망치·절단기 등으로 쉽게 잘리지 않아 도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또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철근형식 자물쇠의 단점으로 보완한 4관절 형식을 채택해 자유롭게 자전거를 묶을 수 있다.

자전거 도난경보기 'TG220'은 고감도 구슬 진동 감지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하면 100dB의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자전거 절도범으로부터 도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카 라이프 중고차 거래, 이것만은 챙기자

가압류 여부·사고내역 미리 확인하라

보증기간·범위 계약서 명시
구매전 시세 미리 파악해야
구매후 1년 이내 환급 가능

광주에서만 한 달 평균 4500대가 거래되는 등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급증, 최근 공정위는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중고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85만대, 신차 시장의 규모(130만대)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풍암1·2·3단지를 비롯해 하남, 수완, 전방, 송암단지 등 중고차매매단지가 5군데나 된다. 이곳에서는 한 달 평균 4500대가 거래된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이 마음 놓고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지는 못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고차 중개·매매에 관한 상담건수가 1분기 2177건에서 2분기 2658건, 3분기 30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또 중고차 관련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국번없이 1372)하라고 당부했다.

◇구매 전-시세를 미리 파악하라=공정위는 차량시세를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평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면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광고와 같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필수다.

중개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지, 판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사원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직거래나 생활정보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는 분쟁이 생기면 보호받기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가압류된 차량은 아닌지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사고내역 조회, 자동차회사의 정비기록 조회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매 계약 때-양도증명서 쓰고 직인날인을=반드시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를 써야 한다. 또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증기간·보증범위 등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판매사원의 자필로 계약서에 명시해둬야 한다.

계약서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받아야 한다. 점검기록부는 허가된 자동차정비업자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중고차는 하자 또는 사고 등이 있을 수 있어 관련기관을 통해 정비이력·사고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계기판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원본에서 기재된 주행거리도 비교해봐야 한다.

◇구매 후 1년 이내 환급 가능=이전등록에 들어간 영수증(취득세·등록세·공채)을 교부받아 확인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소요비용 추정액을 과다 청구하거나 공채할인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인수 뒤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전반적인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성능·상태 등이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구입 후 1년 이내면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동차 소식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경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다. 예를 들어 마티즈 1대와 소나타 1대인 경우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이 안되지만 마티즈 1대와 봉고 1대인 경우는 마티즈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 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이 청구된다. /연합뉴스

포니1 오토, 7000만원 매물로

국내 최초의 자동차 고유 모델인 현대차의 '포니1'이 중고차 매물로 나와 화제다.

29일 중고차 쇼핑몰 보배드림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염모씨가 생산된 지 30년된 1980년식 자주색 '포니1'〈사진〉을 7000만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차량은 1400cc 3도어 국산 최초 오토미션 장착 모델로, 주행거리가 14만9000㎞다. 염씨는 이 차가 무사고 차량이고, 교통박물관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경기 부천의 전모씨는 5도어 해치백으로 주행거리가 17만㎞인 1982년식 '포니2'를 2500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975년 첫 출시된 포니1의 당시 출고가는 227만원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09~2010년 S대를 12명 합격시킨
일곡 국민학원, 봉선 국민영재학원이 야심차게 펼치는
중3 대상 고1예비 특별반 4개월과정-강사진 8명이 수업 (고등학교 입학 후 최우등생으로)
※개강 11월 3일 각 학원 1개반 모집 (영·수 Test후 수강결정)
마감 유의 → 가까운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강사진	언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최복수 / 서강대 대학원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주석진 / 전, 문성고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고난도 수 II N제	신경찬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과학고 TEPS 다년간 지도 / 수능영어 및 TEPS	배철훈 / 전, 대광여고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공통과학 및 화학 I · II	문승훈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현, 일등학원 / 최고의 국사 수업
	강동구 / 동국대 대학원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현, 국민영재학원 논술팀장	박현철 / 전, 일등학원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고난도 10-가, 나 · 수 I			
	정성환 / 연세대 대학원 / 현, 대성학원 서울대반 / 현, 청솔학원 서울대반	양덕열 / 연세대 경제학과(서울) / 전, 서울두레박학원 / 현, 국민영재학원	조도현 / 전남대 영문학 박사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수능영어 및 TEPS		
	박영미 / 국민학원 / 국민영재학원 / 국어 및 문학담당	이강영 / 전, 서울청솔학원 / 전, 일산페르마학원 / 현, 국민영재학원			

최상위권을 위한 변화의 시작! 원하는 목표를 한단계 더 높이자!!

시간표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6:00~7:30	수학	수학	언어/논술	수학	수학	4:30~6:00 언어/논술
7:30~9:00	영어	영어	과학/국사	영어	영어	6:00~7:30 과학/국사

수업시수 (과목 / 시수)	주별 수업 시수	월별 수업 시수	비고
영어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수능영어 + TEPS
수학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10-가,나 + 수 I +수 II
언어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고등논술 + 수능문학 + 비문학
과학 / 국사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공통과학 / 국사

일곡동 국민학원 574-0101 일곡 롯데슈퍼옆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하세요.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672-0483 봉선 이마트 옆

SALE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사용료만 내세요! 월 20,000원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속 있는 효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90,000원~~
219,000
(설치비 포함)
모든 구매고객에게 1년치 필터(2ea) 증정
관공서 납품처
노비타비데호남총판 비데프라자 ☎(062)515-1144
※위 치 : 동림 2지구 동림병원 앞